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졸업식 거행

9개월 대장정 성료...졸업생 80명 ‘통일희망’ 선포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한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가 25일 졸업식을 갖고 9개월 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졸업식에는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80명의 졸업생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특히, 이날 졸업식에서 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통일희망’을 선포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선언문에서 “평화와 통일의 일꾼으로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외부 힘에도 위협받지 않는 평화의 땅이 되도록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일상에서 갈등과 분쟁 대신 상생과 협력, 평화의 삶을 실천하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아울러 “남과 북의 교류·왕래가 활발해지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하고, 전남학생들의 통일희망열차학교 대장정이 복원을 경유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남북한 지도자와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또,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생활에서 참여한 자기주도 프로젝트 활동을 책과 영상으로 제작한 사실을 밝혀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학생들이 직접 출간하고 제작한 58권(76명 저자)의 책과 4권(4명 제작자)의 영상은 지난 21일부터 도교육청 1층 갤러리 ‘이음’에서 전시되고 있다.

‘선 넘은 산책’의 저자인 강소현(남양고 1) 양은 책 출판 소감 발표를 통해 “우리 세대의 새로운 시대는 통일코리아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 된 한반도에 필요한 인력 중심의 헌법을 구상하며 이번 통



일희망열차학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고 말했다. 강 양은 “글을 쓰면서 통일에 대한 지식과 생각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내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우리 민족이 걸었던 애국의 길, 고난의 길, 개혁의 길을 함께 따라 걸으며 여러분 또한 위대한 역사를 썼다.”고 격려하며 “여러분이 품은 통일의 씨앗을 후배들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며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교육 역사자료 기증 캠페인 나서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가칭)전남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해 전남교육 역사 자료(유물) 기증 캠페인에 나선다.

수집 대상 유물 자료는 근·현대의 전남도 교육 역사와 관련한 모든 유물자료와 박물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이며, 해당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는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다.

유물자료 기증은 무상 조건이 원칙이며,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한다.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기증 대상이 아니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를 수여하는 등 예우를 위해 다양한 특전도 준비하고 있다.

기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

하고, 전화(061-260-0868) 또는 전자우편(kgyuri@korea.kr)으로도 문의·접수가 가능하다. 기증신청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윤명식 행정과장은 “전남도는 교육문화의 르네상스를 꾀고 있는 고장으로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전남도 교육역사에 특화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유물 기증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면서 “기증 유물은 박물관 전시, 교육, 연구 등의 자료로 소중한게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가칭)전남교육박물관 설립 협력 사업 공모를 벌여 평균에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 노동초, 차훈 명상 프로그램 운영



노동초등학교는 보성군 보건소의 수업 지원을 받아 지난 17일, 23일에 학년별로 2회씩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차훈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노동초 전교생(29명)들은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아침열기 활동을 통해 다도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차훈명상에 참여한 것이다.

차훈명상은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보향의 열 계승 교육 중 하나인 다도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 운영은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된 명상과 녹차를 활용한 도인호흡, 차훈 특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었

다. 차완에 담긴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명상의 시작을 알렸다.

아이들은 찻잎의 색과 향을 맡으며 차의 따뜻한 기운을 느껴보았다. 처음에는 뜨거운 김 때문에 아이들은 손이 데일까봐 두려워하고 얼굴에 닿는 느낌을 꺼리기도 했다.

차훈포를 뒤집어쓰고, 차완에 얼굴을 가까이하며 명상 음악과 함께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나의 의미, 고요한 마음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 등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떠올리고 나니 길었던 10분은 금새 흘러갔다.

차훈명상에 참가한 4학년 학생은 “차물이 너무 뜨거워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음악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해보니 생각보다 10분이 빨리 지나갔어요. 아침마다 차를 마셨는데, 차를 이용해 명상을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녹차 팩을 하니 마음과 함께 몸도 예뻐지는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 경영·창업 축제’ 광주서 개최

‘비즈쿨 페스티벌’ 31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서

‘2019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이 오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 1·2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교육부가 후원했다. 비즈쿨(Bizcool)은 Business와 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로 31일 개막식에는 광주시교육청 오승현 부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관계자 다수가 참여한다.

3일간 진행되는 축제에는 전국 136개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밖센터 청소년이 참여하며 광주·전남에서 경신여고, 광주여상, 자연과학고, 전남공고 등 19개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전시, 체험 부스를 직접 운영한다.

특히 광주 경신여고는 충주 성심학교와 함께 댄스 무대와 함께 축하공연으로 선보인다.

광주여상과 전남공고 등 전국 특별주제전시학교 32개교는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상상과 공존을 전파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주제로 전시관을 운영한다.

2007년 시작해 13년째를 맞이한 비즈쿨 축제는 청소년이 서로가 연결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상생리더’로서 가능성을 펼친다는 의미에서 ‘너랑 나랑 같이 가치’를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그동안의 비즈쿨 활동성과를 전시하고 다양한 부대행사와 기업가정신 경진대회 등이 학생 주도로 진행된다.

창업경진대회(COME UP BizCool, 이하 경진대회), 미니해커톤(BizCool Ton : 2!, 이하 해커톤)은 전국단위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중·고등학생이 최종 경연을 페스티벌 현장에서 벌일 예정이다.



전대사대부중-심양사대부중, 교육문화교류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가 중국 심양사범대학부속중학교와 23일부터 25일까지 양국의 역사·문화 이해, 학교현장 체험 및 문화 탐방, 교육성과물 공유, 홈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으로 한·중 학생 교육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교육활동으로는 매칭된 홈스테이 친구들과 본교의 무한상상실에서 목공 체험, 드론 체험 수업과 중국지도 만들기 퍼즐 합동작품 미술수업 등의 교과 체험활동과 친선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한·중 교원들 간의 교육전반에 대한 공유를 위한 간담회 및 수업참관, 문화체험활동으로는 담양 죽녹원 일대에서 우리나라 전통 한복 예쁘게 입기 페스티벌과 화과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를 깊게 이해하는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첫날 중국 심양사대부중 교직원과 학생들을 열렬히 맞이하는 전

대사대부중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다양한 환영을 위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양국 학생 42명이 홈스테이 가정에서 이틀간 한국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활동으로는 매칭된 홈스테이 친구들과 본교의 무한상상실에서 목공 체험, 드론 체험 수업과 중국지도 만들기 퍼즐 합동작품 미술수업 등의 교과 체험활동과 친선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한·중 교원들 간의 교육전반에 대한 공유를 위한 간담회 및 수업참관, 문화체험활동으로는 담양 죽녹원 일대에서 우리나라 전통 한복 예쁘게 입기 페스티벌과 화과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를 깊게 이해하는 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조인호 기자

